

냉전 미학의 서사욕망과 대중감성의 젠더

- 해방 후~1950년대까지의 신문소설을 중심으로 -

김복순*

〈차례〉

1. 냉전체제의 ‘차이’와 대중성의 보편성/특수성
2. 냉전 미학의 내적 형식과 젠더
 - 2.1 냉전적 황홀과 ‘감각하는 인간’(Homo Sensus)
 - 2.2 재미의 젠더화, 사적 영역화
 - 2.3 무논리성·즉자성의 원리 : 반공주의, 미국주의
 - 2.4 이분법의 극단화, 비(무)갈등론의 패퇴
3. 맺는말

〈국문초록〉

냉전 시기를 단지 근대화(성) 시기roman 간주하면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냉전 체제의 ‘차이’가 소거된다는 점, 서구적 근대화(성)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지향성이 포착된다는 점, 신식민적 제 특성이 은폐된다는 점이다.

‘냉전 미학’은 냉전 체제 하에서의 예술적 지향성 및 서사적 특성을 담론화하는 미학적 장치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신식민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지배(종속)와 저항의 양면을 고찰하고 담론화 과정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해방 후-1950년대 신문소설의 감각화, 사적 영역화, 젠더화, 무논리성·즉

* 명지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자성, 극단적인 이분법이라는 내적 형식들은 냉전체제의 문제를 ‘제시’해 주기보다 ‘은폐’하였고, 신식민적 타자들을 양산하는데 더 기여하였다. 이러한 방법하에 특히 여성(성)은 ‘내부 냉전’ 요소로 확대·배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냉전-분단이 남성의 노이로제였음도 확인시켜 주었다.

당시의 신문소설은 냉전의 다양한 국면을 반영하면서 냉전 미학을 창출해 보여 주었다. 체제경쟁, 이념경쟁, 이분법적 대립, 내부 냉전 요소 만들기, 특정 주제 다루지 않기, 특정 주제 극대화 하기, 냉전에 대한 풍자 결여 등 당시의 신문소설은 비정치적 형태의 위장된 냉전 무기였다. 당시 신문소설의 계몽구조는 신식민적 타자의 생산을 통한 계몽구조였다. 이는 잡지 소재의 단편이나 장편, 전작 장편의 서사전략과 다른 것이었다. 냉전 미학은 내적 형식을 통해 ‘여성성’을 가장 근본적인 냉전 요소로 배치하였고, 냉전 미학에서 ‘젠더’는 기본모순의 핵심이었다.

핵심어: 냉전 미학, 대중감성, 열망공동체, 냉전적 황홀, 감각하는 인간, 재미의 젠더화, 반공주의, 미국주의, 비(무)갈등론, 이분법

1. 냉전체제의 ‘차이’와 대중성의 보편성/특수성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한 1991년까지의 냉전 시기는 ‘극단의 시대’였다. 냉전은 두 개의 상호 적대적, 배척적인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¹⁾ 그 둘로부터 점령된 한반도는 대리전의 형태로 더욱 ‘극단’화 할 수밖에 없었다. 냉전 시기가 자본주의적 근대체제의 일정 단계를 의미하기는 하나 우리의 경우 이를 단순히 근대화 시기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테어도르 휴즈가 남한을 ‘우파 위성 국가’²⁾라 규정한 것은 신식민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반도의

1) 베르트 슈퇴버, 최승완 옮김, 『냉전이란 무엇인가-극단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8.

2) 테어도르 휴즈, 『냉전세계질서 속에서의 해방공간』, 『한국문학연구』 28집, 2005. 4쪽

경우 냉전체제에다 분단체제³⁾적 성격이 보태져서, 냉전 체제의 ‘전 지구적 차원’ ‘한반도적 차원’ ‘분단국가 내부적 차원’이라는 복합적 시각을 요청하게 되었다.

냉전체제라 해도 모든 나라가 동일한 구조였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남한은 유럽 또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남미 등과도 다른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승전국인 연합국과 패전국, 또 부산물로 해방을 맞이한 제3세계가 동일한 체제이기는 어렵다. 아시아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대만의 냉전체제는 달랐다.⁴⁾

미군정이 실시된 동북아시아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달랐다. 일본의 천황제는 그것이 없는 한국과 다른 냉전 체제를 형성하였으며, 더구나 일본은 패전국이란 점에서 한국과는 매우 다른 정서체계를 이루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이 회한공동체⁵⁾였다면,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은 열망공동체⁶⁾였다.

냉전체제의 차이는 그 체제를 구축하는 대중들의 감수성의 차이를 부

- 3) 한반도는 냉전 체제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한국전쟁을 통해 냉전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지만, 현존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점에서, 즉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남북한의 두 분단국가의 운영원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남북한 중심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로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종식된 글로벌화 한 21세기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남북한 중심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4) 냉전체제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마루카와 데쓰시, 장세진 옮김, 『냉전문화론』, 너머북스, 2010.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08. ; 한국-타이완 비교문화연구회, 『전쟁이라는 문턱』, 그린비, 2010. ; 니콜라 밀러·스티븐 하트 편,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옮김,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한다』, 그린비, 2008, 참조
- 5) 회한공동체라는 용어는 마루야마 마사오가 전쟁 반대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제시한 것이지만(丸山眞男, 『近代日本の知識人』, 『丸山眞男集 10』), 오쿠 타케노리는 지식인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한다(奥武則, 『論壇の前後史: 1940-1970』, 平凡社, 2007, 23-42쪽).
- 6) 열망공동체에 대하여는 2장 1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를 수 있다. 사회과학적 개념으로서의 대중이 근대 이후의 존재라면, 근대화 양상의 차이에 해당하는 냉전체제의 차이는 각 하부단위로서의 (민족)국가에서의 대중 개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각 (민족)국가 단위의 정서의 차이는 곧 대중성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대중성은 근대라는 역사적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는 보편성을 갖지만, 위의 ‘차이’들로 인해 특수성을 지닐 수 있다.

또 대중성은 ‘무성’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대중성에도 젠더가 개입되어 있다. 대중성은 내용과 형식의 양 측면에서 생산·유포된다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형식에 해당하는 시점, 플롯, 문체, 환경, 대화적 구성 등에도 젠더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⁷⁾

냉전 시기를 단지 근대화(성) 시기로만 간주하면 여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냉전 시기와 근대가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냉전 시기를 소거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냉전 체제의 ‘차이’가 소거된다는 점, 서구적 근대화(성)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지향성이 포착된다는 점, 신식민적 체 특성이 은폐된다는 점이다. 냉전성을 고려하면, 우선 신식민적 주체의 담론화 과정 및 당대의 이념적 지평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신식민적 주체들은 의식·무의식적으로 반(反)현실의 총체적인 조직화를 지향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부 냉전을 지속시키는 전략에 저항할 수도 있다. 근대화(성) 개념만으로는 ‘저항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냉전 미학’은 냉전 체제 하에서의 예술적 지향성 및 서사적 특성을 담론화 하는 미학적 장치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배(종속)와 저항의 양면을 고찰하고, 담론화 과정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시기별로 다르긴 하지만⁸⁾ 해방 후 신문소설이야말로 대중의 염원을

7) 김복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서의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제 26호, 2011, 232-3쪽.

8) 신문소설과 관련하여, 해방 후-4·19까지의 시기구분은 다음과 같다. 해방(대 시기 구분점)-(제1기)-1946년 중반(중 시기 구분점)-(제2기)-단독정부 수립(소 시기

가장 적실하게 담아냈던 예술 장르 중 하나였다. 지금과 달리 당시는 소설이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적 매체였으며, 이후 장편소설의 원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신문소설은 2기의 공산주의 불법화에 따른 강력한 언론 통제 및 사상 통제, 검열, 3기 이후의 보도 연맹 등을 통한 전향 작업 등 작품의 서사지형도를 바꾸는 다양한 담론화 현실을 뚫고 나아가야 했다. 미군정 실시 후에 공포된 신문지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 검열로 인한 사상 및 정서 표현의 제한, 전향, 빨갱이 공포 등은 서사지형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⁹⁾ 담론화 지형과

구분점)-(제3기)-1951년 중반(중 시기 구분점)-(제4기)-1958년경(소 시기 구분점)-(제5기)-4·19(대 시기 구분점)로 분류한다. 1기는 공산주의 합법화 시기로서 다양한 이념지향태가 가능했던 시기이다. 2기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후 공산주의가 불법화 되고 신문지법 등이 실시되면서 언론이 강력하게 통제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미군정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이다. 1946년 5월 4일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72호를 공포하여 유언비어의 유포나 포스터, 삐라 등의 방법으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정판사 사건과 관련하여 신문 발행 허가제를 실시하였고(88호), 『해방일보』 무기정간, 소련 영사관 폐쇄 등의 조치를 연달아 실시하였다. 이러한 법령들로 인해 작가에게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언론의 자유가 심각히 억압되었다. 3기는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우익의 승리 후 좌파 이념이 이념적으로도 완전히 통제되면서 좌익소탕 작전이 시행되던 시기이다. 남한의 문학인들은 거의(중간과까지도) 전향성명서를 발표해야 하는 등 좌익 이념과의 절연성을 증거해 보여 주어야 했다. 정전논의가 시작된 1951년 중반부터는 새로운 모색이 시작된다. 역사학회 진단학회 국어국문학회 등이 창립되고, 『사상계』도 창간된다. 전재복구 계획이 수립된 것도 전후가 아니라 1952년 피난수도 부산에서였다(『AP 통신이 본 격동기 서울--8·15 해방에서 4·19혁명까지』, 서울역사박물관, 2012). 따라서 1953년 휴전을 기점으로 전재 복구가 시작되었고, 댄스 문화 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비석도 『청춘산맥』에서 댄스 및 남녀평등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친 것은 해방 후부터라고 언급한 바 있다. 1952-3년에 출판된 소설들이 전쟁기의 사회상을 마치 비전쟁기의 일상처럼 그리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고도 할 수 있다. 1958년은 이승만 독재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이 시작된 시기이며, 문학에서도 사회비판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이다(민족문학사연구회, 『196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1996, 여기서는 4·19의 움직임이 역사상으로나, 문학상에서 모두 1958년에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움직임은 4·19로 가시화 된다.

9) 3기의 '전향'에 대해서는 이봉범,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중문화연구』 64집, 2008, 참조

작가적 전략, 대중의 기대지평 등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신문소설이라면, 당대의 신문소설들이 냉전 체제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신식민지 주체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소위 ‘근대성의 특수성’이라 불리는 ‘젠더’가 냉전 미학에서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해방-4·19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신문소설의 전개양상을 고찰하면서, 대중성의 보편성 및 특수성이 근대성 및 젠더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5대 일간지(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를 중심으로¹⁰⁾ 연재 후 단행본으로 출판되었거나 영화화 된 소설로 한정하며, 당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제한한다.¹¹⁾ 즉 역사소설은 나름대로는 예술적 기획 하에 쓰여진 것이지

-
- 10) 잡지 장편 및 단편, 전작 장편의 경우 작가의 전략 및 서사 지형도가 신문소설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같은 작가가 하더라도 신문소설과 잡지소설의 망팔리떼가 달랐다. 예를 들어 정비석의 경우 『여원』에 연재한 장편 『아래향』과 『산유화』는 남성들의 순정을 그리고 있어 신문소설과 다른 망팔리떼를 드러낸다. 정비석의 신문소설이 남성젠더적 시선 하에 낭만적 사랑의 계보 중 ‘성 계보’를 드러내는 경향이 짙다면, 잡지 『여원』, 『에서는 여성젠더적 시선 하에, 낭만적 사랑의 ‘사랑 계보’를 보여 준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낭만적 사랑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 『어문연구』 151호, 2011, 참조. 이는 정비석이 독자별로 서사전략을 다르게 구성하였다는 뜻이 된다. 잡지 『여원』은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창간된 잡지였다.
- 11) 1949년 경(3기)부터는 인기 있는 소설의 경우 대개 ‘연재 후 단행본화’, ‘영화화’라는 공식을 거쳤지만, 단독정부 수립 이전에는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지 않았다. 또 단독정부 수립 이전에는 소위 대중적 소설만 연재되었던 것이 아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아도 본격소설 영역에 포함되는 작품들이 신문소설로 연재되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발표된 소설들은 작가들이 전집에도 넣지 않았다던가(염상섭의 『효풍』과 김동리의 『해방』), 한동안 거론되지도 않았다(김남천의 1945년 8.15). 따라서 단독정부 수립 이전의 시기는 위의 전제를 따르기 어렵다. 따라서 1, 2, 3기의 경우 당대의 정치 지형도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김남천의 『1945년 8·15』, 염상섭의 『효풍』, 김동리의 『해방』은 각각 1, 2, 3 기의 정치지형도(공산주의 합법화 시기의 좌파, 공산주의 불법화 시작 시기의 중관파, 단독정부 수립 후의 우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소설로서 각 단계의 대표성을 담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대상 작가 및 작품은 다음과 같다. 김남천의 『1945년 8·15』, 염상섭의 『효풍』, 『취우』, 김동리의 『해방』, 김광주의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 『석방인』, 최정희의 『녹색의 문』, 정비석의 『청춘산맥』, 『자유부인』, 『민주어족』, 『낭

만 당대 대중들의 즉각적인 호응도를 살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당대란 3-4년 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1950년대 후반에 한국전쟁을 다룬 소설(예: 『비극은 없다』 등)과 일제 말기를 다룬 박계주의 『대지의 성좌』, 김내성의 『청춘극장』도 제외한다. 연재 후 곧 단행본으로 출판되거나 영화화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성’이란 기대지평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2. 냉전 미학의 내적 형식과 젠더

2.1. 냉전적 황홀과 ‘감각하는 인간’(Homo Sensus)

해방은 ‘대중 유토피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사람들은 민족해방에 따라 자유회복이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면서,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대중 주권으로서 정치적 욕망을 표출하였다. ‘남과 북이 갈리고 이틀 새 정당이 45개나 생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떠들어 대’던 질풍노도 속에서 ‘대중 주권’들은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었다. 대중들의 주권의식은 당대에 새롭게 재발견된 ‘공통감각’¹²⁾으로서의 대중감성¹³⁾을 형성하

만열차, 『슬픈 목가』 『유혹의 강』, 박계주의 『진리의 밤』 『별아 내 가슴에』, 김말봉의 『생명』, 『푸른 날개』, 김내성의 『에인』, 『실낙원의 별』, 박화성의 『고개를 넘으면』, 『사랑』, 『내일의 태양』, 안수길의 『제2의 청춘』, 박영준의 『태풍지대』, 장덕조의 『격랑』, 한무숙의 『빛의 계단』, 안수길의 『부교』 등이다. 구체적인 서지는 뒤의 참고문헌 참조. 본 논문에서는 단행본을 텍스트로 하였다. 신문연재본을 다 섭렵하기도 어려웠지만, 신문연재가 끝난 후 바로 단행본화 하였기 때문에 수정할 틈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또 각 작품의 인기가 신문연재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인기를 단행본 출판시 굳이 수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따라서 이본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12) 이상의 내용은 김복순, 『해방 후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연관』, 『여성문학연구』 제26호, 2011, 참조

13) 대중감성이란 감성의 내용과 형식, 주체성의 세 차원의 계기를 내재하는 개념이다. 대중감성은 집합적 감성이면서 동시에 보편적 감성이다. 대중감성의 힘은 소통과

면서 열망공동체를 만들어 갔다.¹⁴⁾

열망공동체란 대중이 스스로 주권자란 인식 하에,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발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패전 후의 일본이 회한공동체로서 반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신 혁명을 통해 새로운 일본의 출발을 이룩해야 한다는 감정의 확산을 꾀하면서 지식인의 연대를 부르짖었다면, 남한에서는 지식인을 포함한 전 대중이 새나라 건설을 꿈꾸면서 희망, 열정, 긍정이라는 감정의 확산을 도모하는 열망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살인사건이나 이혼 문제 등이 불거져도, 아무리 신문 매체들이 센세이셔널하게 다루어도 누구 한 사람 돌아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면,¹⁵⁾ 해방 후 남한은 모든 일을 ‘나-우리’의 일로 만들면서, 참여하여 무언가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퍼져 있었다. 이때의 열망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나라 만들기, 민주 사회·계급 없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 인권의 확보, 해방인·자유인 되기 등의 공적인 것과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기(사랑, 연애, 성) 등의 사적 영역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열망공동체의 제 특성들은 ‘황홀’이라는 대중감성을 유발하였다. 해방이 자력에 의하였다기보다 도둑처럼 왔기에 대중들의 정서는 더욱 황홀감으로 확산되었다. 이틀 새 정당이 45개나 생길 정도로 누구나 정당을 만들어¹⁶⁾ 정치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도 식민지 시기에는 꿈꿀

다중성에 있으며, 민족 정체성이 요청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 결집력을 강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으며, 일상의 문화가 작동하고 개입되는 관계를 드러낸다. 대중감성은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체도를 통해 정향되며, 이성(지성)은 대중감성을 정향시키는 윤리적 이행의 핵심계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감성은 ‘코나투스-사회체계’와 유사한 개념이다(김복순,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제19호, 2008, 9-10쪽 참조). 대중감성은 대중의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신문소설과 같은 대중문화에 관한 중요한 이해의 통로가 된다.

14) 중간과 언론인이었던 오기영은 ‘지금 정치를 운운하는 이들은 확실히 열병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오기영, 『경애하는 지도자와 인민에게 호소함』, 『신천지』, 1946.11.

15) 奥武則, 『論壇の前後史: 1940-1970』, 平凡社, 2007, 40-41쪽.

16) 한 미국인 군정관리는 한국인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3개의 정당을 만든다고 꼬집

수 없던 황홀한 것이었으며, 해방된 민족으로서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개인들을 더욱 황홀이라는 정서 속으로 침윤되게 만들었다. 즉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바로 개인적 주체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해방 후-1946년 중반에 이르는 1기는 정치, 이념, 제도, 국가 건설 등 공적 영역에 관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면서 ‘공통감각’을 만들어 갔던 시기였고, 이들 소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며 일상성을 만들어 갔던 시기였다. 흔히 이념, 제도 등의 공적 영역에 관한 소재는 일상성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쉬우나, 해방 직후의 소설들은 ‘공적 영역’에 관한 ‘세부’들을 공통감각으로 유지, 확대, 발전시키면서 그 속에서 영위되는 일상적 삶을 보여 주었다.

김남천의 『1945년 8·15』는 ‘격문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57)고 ‘이틀새 정치단체가 43개나 생기는’(58) 당대 현실에서 비록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 건설에 매진하는 청년들을 형상화 해 보여 준다. 해외 독립운동가인 박무산을 아버지로 둔 딸 박문경이 애인 김지원과 함께 제약회사 분회결성에 참여하게 되기까지의 여러 갈등과 고민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에는 친일파 이신국의 딸 이경희와 박문경의 동생 박무경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전자는 좌익 이념에 토대해 있으며, 후자는 우익으로서 이경희의 남편 김광호와 친일파 최진성, 이신국과 박문경의 동생 무경이 이에 해당된다. 문경의 가족은 아버지와 딸, 아들의 대중 유토피아 구상이 각기 다르다. 아버지 박일산은 건준 세력을 대표하며, 딸 박문경은 좌파, 아들 무경은 아버지를 따르는 듯하다가 매관 친일 세력으로 이동하면서 각기 다른 대중 주권체가 된다. 전자는 이념서사 및 연애서사로 형상화 되며, 후자는 이념서사보다 연애서사가 핵심으로 더 부각되어 있다.

이념은 다르지만 좌파나 우파 모두 ‘공적 영역’에 대해 나름대로의 열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열망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불륜으로 이어지는

었다고 한다. 윌리엄 스톡, 김형인 외 옮김, 『한국전쟁의 국제사』, 푸른역사, 2001, 50쪽;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 출판부, 1997, 25쪽.

박무경과 이경희도 공동체적 관심사를 도외시 하지 않는다. 박무경이 아버지파에서 우파로 돌아서는 과정이나 이경희가 여성운동이나 탁아소 운영을 중요한 자신의 역할로 삼는 부분은 공적 영역에서 개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¹⁷⁾

이러한 열망공동체는 중시기 구분점인 1946년 중반을 지나면서 약화되다가 단독정부 수립 후에는 열망의 내포를 수정하게 된다. 즉 1946년 중반-단독정부 수립을 거쳐 한국전쟁까지의 2-3기는 들뜬 ‘황홀’에서 차분한 ‘모색’으로 열망의 내포가 바뀌게 된다. 1기의 『1945년 8·15』가 민족/반민족의 구도 속에서 이분법적 대립을 만들지 않으려는 서사지향을 보인다면, 2기부터는 민족/반민족 구도가 좌/우 대립 구도와 맞물리게 된다. 열망공동체적 관심은 염상섭의 『효풍』이나 단독정부 수립 후에 발표된 김동리의 『해방』에도 드러나 있으나, 2기의 『효풍』은 『1945년 8·15』와 달리 차분히 ‘모색’하는 단계를 보여주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서 새 질서를 찾으려는 고민과 노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열망공동체적 특징이 서사의 중심으로 초점화 되어 있다. 특히 ‘스왈로 회담’ 장에서는 등장 인물들의 이념에 따른 정치 지형도를 보여 주면서 서로 논쟁하도록 꾸며 놓고 있다. 미국인까지 가세하여 국가 건설 이념과 관련한 불꽃 튀는 설전을 펼친다. 『해방』에서도 정치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정치적 열망을 거두지 않는다. 다만 이미 우익정부가 수립된 후여서 열망의 강도 및 좌/우파의 ‘대립’이 약화되어 있다. 대신 성적 욕망이 또 하나의 의제로 등장하면서 정치적 견해와 성적 욕구가 서로 얽히면서 형상화 된다.

3기까지는 열망공동체적 특징이 나름대로 유지되면서 나타난 황홀이 있었다면 4기부터는 열망공동체의 양상이 줄어들어 대신 새로운 황홀이 제시되기 시작한다. 4기의 황홀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유, 민주의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 1-3기의 열망공동체에서는 대중 유토피아 건설과 관련된

17) 자세한 것은 김복순, 『해방 후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연관』, 『여성문학연구』 제26호, 2011, 참조.

‘황홀’이었다면, 즉 새로운 나라 건설, 사회 건설과 관련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주로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욕망과 더불어 황홀이 제시된다. 즉 개인적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소비로서의 자유, 민주가 주는 황홀이었다. 외출할 수 있는 자유로부터 창출되는 황홀, 남자와 함께 부둥켜 안고 댄스를 출 수 있는 자유로부터 맛보는 황홀, 새로운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물질적 황홀, 남녀평등 시대가 되어 새로운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오는 황홀, 여성의 연애¹⁸⁾가 가능하리라는 데서 오는 황홀, 새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보다 더 쉽게 여성들을 농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오는 황홀, 스위트 홈을 만들 수 있다는 데서 오는 황홀 등 4기는 그야말로 황홀의 무대였음을 신문소설은 여실히 보여준다.¹⁹⁾

『자유부인』에서 오선영은 댄스를 추고 파리양행에 출근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황홀에 빠져 든다. 『청춘산맥』의 노영혜는 자신의 미모를 발휘해 재력 있는 고위층 남자를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환상에 이어, 원했던 남자가 접근해 오자 육체적 향락은 물론 신분 상승까지 이룰 수 있다는 황홀에 빠진다. 강미자는 철저한 물질문명주의자로서, 물질적인 것이든지 남자든지 모두 다 소유할 수 있다는 상류층의 계급적 속성에 황홀감을 느낀다. 노영혜, 강미자와 같은 부류는 거의 모든 실문소설에 등장한다. 『유혹의 강』의 최선애를 제외한 이경희 등의 팔명회의 미망인들, 『애인』에서의 ‘명동형 인물’ 임석란, 『푸른 날개』에서 남자 주인공 권상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 인

18) 여성이 주체가 되는 연애를 말한다. 프롤레타리아 소설에서도 여성은 연애의 주체가 아니었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낭만적 사랑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 『어문연구』, 151, 2011, 참조.

19) 잡지 장편 및 단편, 전작 장편 단행본의 경우 주된 정서는 ‘황홀’이라기보다 우울(손창섭), 비애(전광용, 고은), 분노(박경리), 부조리(장용학), 절망(최일남), 허무(박태순) 등이어서 황홀과는 거리가 있다. 즉 신문소설과 비신문소설은 추구, 반영하는 정서의 차이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신문/비신문 소설의 비교분석에 있지 않으므로 더 자세한 것은 추후의 논문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물들, 『진리의 밤』의 설영, 『별아 내 가슴에』에서 아버지 뺨의 현암을 사랑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미혜, 『실락원의 별』에서 유부남과의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고영림 등은 모두 자유와 민주를 개인적 차원에서 황홀로 받아들인 인물들이다.

남성 인물들 또한 자유와 민주를 황홀하게 민낯한다. 당대에 퍼진 낭만적 사랑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사랑은 정신과 육체가 병행하는 것’, ‘연애란 애욕발산행위’ 등의 이론을 읊조리며, 여성의 육체를 탐한다. 『민주어족』의 배영환, 『청춘산맥』의 이흥태, 『낭만열차』의 권달수와 원동준, 『유혹의 강』의 오영환 등이 그 예이다. 『애인』의 유민호는 1950년대 신문소설 중 가장철저한 ‘악’의 논리를 지닌 인물이다. ‘여성의 결혼은 의식주를 보장 받으려는 성 행위에 불과하다’, ‘결혼계로 결혼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애정의 유무로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남자의 애욕은 결혼이나 생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의미의 애욕 그 자체에 있다’ 등 근대의 결혼제도를 ‘남녀 간의 은폐된 성적 계약(캐럴 페이트만처럼)으로 본다든지, 일부 일처제의 허구성 등 남성 생식기 중심의 가부장적 논리를 뚜렷하게 견지한다. 이러한 부정적 인물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자유와 민주를 ‘소비’한다. 이들은 자유·민주에 대해 ‘의무’보다 ‘권리’로 향유하려 한다.

긍정적 인물로 제시되는 경우에도 황홀감은 동반된다. 『낭만열차』의 원낙영 교수, 『민주어족』의 박재하 사장, 『슬픈 목가』의 강병철, 『유혹의 강』의 의사 윤만호, 『실락원의 별』의 강석운 등도 부인 또는 약혼자가 있음에도 어린 여성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는 남심이 되고 만다. 물론 이런 긍정적 인물들은 유혹이 와도 슬기롭게 극복하거나 우연한 장치로 인해 황홀이 물거품이 되는 등 흔들림이 곧바로 불륜 또는 불의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게 불륜을 저지르고 난 경우에도 위의 부정적 인물들처럼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 남성 인물들은 불륜, 겁탈, 사취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도 윤리적,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유혹의 강』의 윤만호는 이경혜와의 들뜬 하룻밤을 보내고는 곧 후회하

며, 『민주어족』의 박재하 사장은 나이 어린 경란과의 사랑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후배 홍병선을 추천하면서 잠시 유치장에 갇혀 있는 사이에 저절로 관계가 청산되면서 홍병선과 경란을 맺어지게 한다. 『낭만열차』의 원낙영 교수는 기생 박난심과 밀월여행을 떠나지만 박난심이 갑자기 병에 걸리는 바람에 욕정을 단념하게 된다. 이처럼 긍정적 인물들은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후회하거나, 아예 부정을 저지를 기회를 차단시켜 놓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4-5기의 황홀의 원천은 ‘국가(사회)’보다 ‘개인’을 고려할 때, ‘의무’보다 ‘권리’를 우선시 할 때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기의 황홀이 하나의 몸을 ‘민족국가’로 만들 때의 감동으로서 열망공동체 하에서 민족국가적 축제로 운위된다면, 3기의 황홀은 『해방』에서 보듯 헤게모니의 획득에서 오는 황홀이었다. 반면 4-5기의 황홀은 자유·민주를 소비함으로써 빛어지는 황홀이었다.

①이 흥분, 이 심장의 동계(動悸), 혈관을 뛰어 다니는 맥박같이 터지는 숨결! 그는 ...몸과 마음을 던져 버리고 짧은 감정 앞에 휩쓸리는 것이 한없이 즐거운 것이다.(김남천, 『1945년 8·15』, 10)²⁰⁾

②베커는 도리어 유쾌한 듯이 이것은 진짜 A신문 기자로구나 하는 생각으로 뒷말을 기다리고 앉았다.....베커는 헤란이 같은 여자 외에 이런 여자도 조선에 있는가? 하고 속으로 놀랍기도 한 것이다.....베커는 놀라는 심정이다.....베커도 조선 청년의 소리를 듣는 것에 흥미가 나는 듯이 유쾌한 낮 빛으로.....(『효풍』, 113-115)²¹⁾

③ 원수를 갚읍시다. 우리가 살아 있는 날까지는 우군의 원통한 피를 씻어줍시다. 이일을 위하여 나도 여러 동지들과 함께 힘껏 싸우겠습니다.

20) 작가들, 2007본.

21) 실천문학사, 1998본.

다.(259)...너무도 깊은 즐거움에서 울어 나는 소리였다. 큰 꿈에서 깬 것처럼 갑자기 웃음이 복바쳐 올랐다....기쁘고 말고 조선 독립이라니! 이것이 꿈인가 생인가?...독립의 결과로 설령 사형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는 즐겁게 죽음의 명령 아래 복종할 수 있을 것 같았다.(281)... 양애가 다녀간 뒤 갑자기 방안에 향기가 찬 듯이 이장우에게는 느껴졌다. 그는 갑자기 새로운 힘이 솟아오름을 깨달았다.(『해방』, 293-4)²²⁾

④음악이 고비를 넘길 때마다 멋들어지게 넘실거리는 육체와 육체! 향기로운 음악과 향기로운 행복에 황홀하게 도취되어 가는 얼굴과 얼굴!(중략).....여기에서만은.....(중략).....오직 쾌락과 행복만이 무르녹고 있을 뿐이었다. 인생의 쾌락과 정열의 발산과 청춘의 난무가 있을 뿐이다. 관능적인 체취에 정신이 현혹해 오도록 대담무쌍한 애욕의 분방이기도 하였다.(중략).....오여사는 정신없이 돌아갔다. 오직 황홀할 뿐이었다. 육신이 한태석의 몸에 흡수되어 버리는 듯 허리에 감긴 손끝이 움직이는 데 따라 나비처럼 돌아갈 뿐이었다. 순간적인 환락을 위해서라면 영원한 불행을 초래해도 조금도 뉘우칠 것이 없는 극치의 순간이었다.(정비석, 『자유부인』 하200-201)²³⁾

⑤미끄러지기 잘 하라고 하얀 봉산을 뿌린 흙에서, 스텝을 밟아 넘길 때마다 여자들의 의상에게 반사되는 오색찬란한 색채는 눈이 부시도록 현혹하였고,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 발산되는 향수와 지분냄새는 정신이 어지럽도록 향기로웠다. 돈과 청춘과 사치가 한덩어리로 엉켜져서 화려한 멜로디를 타고 물결처럼 호화롭게 퍼져나가는 향락의 바다요 향락의 파라다이스였다.(정비석, 『청춘산맥』 하 편, 166)²⁴⁾

22) 『어문론총』 37호, 2003본.

23) 고려원, 1985본.

24) 협동문화사, 1951본.

⑥오늘밤 화주는 지금까지의 걸어오던 범주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다만 동물적 충동으로 몸을 맡길 뻔 했던 사실은 진실로 화주 인생에 처음 되는 일이다. 김기철의 불타는 정옥의 도전, 그 무서운 야성적인 포용.....정열의 박력. 화주는 평소에 김기철을 멸시했고 또 싫어 했던 것이다. 그러한 김기철이가 오늘 밤 적나라한 수컷으로서 도전해 오는데 화주는 일시 황홀했던 것이다. 몸뚱이 전부....(김말봉, 『생명』, 221)²⁵⁾

⑦최여사는 윤박사의 편지를 받아 읽은 그날부터 오래간만에 살아 있는 보람을 느꼈다. 마치 그와 더불어 피크닉을 가기 위해 삼십칠년이나 살아 온 듯한 기쁨이었다.(정비석, 『유혹의 강』 하편, 479)²⁶⁾

⑧원낙영 교수는 형용하기 어려운 행복감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십여년 전에 무심히 지꺼린 말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빠나나를 일부러 사왔다는 것도 뼈에 사무치도록 감격스러운 일이었지만, 과일가게에서 빠나나를 볼 때마다 자기를 연상했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기에 원교수는 과일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도, 빠나나의 향취가 그대 박난심의 향취인 듯한 착각조차 느꼈다.(정비석, 『낭만열차』, 104)²⁷⁾

⑨『제멋대로 돌아가는 레코드의 경쾌한 음악 돌아가는 레코드처럼 뒤죽박죽이 되어 광란하는 얼굴과 얼굴들. 매니큐어를 한 새빨간 손이 테-블 위에 놓인 유리컵에

인생이 무엇이 그렇게 즐거웁고 웃을 만한 일이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어도 어쨌던 청춘장 이층 홀에 모인 남녀들은 하치않은 일에 웃음이 터져 나오고 조그만 일에도 손바닥이 처지는 명량한 인간군상들인 모양이다.(김

25) 『한국문학전집 15』, 민중서관, 1972본.

26) 신흥출판사, 1958본.

27) 동진문화사, 1958본.

광주,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 17-8)28)

⑩억압되어 있던 걱정은 돌팔매하듯이 분류했고 숨기쁜 포옹 속에서 영혼의 격류는 아우성과 소용돌이를 쳤다.

“칸나여 내 역사는 내 손으로 만들며!” ...

영림은 강선생의 벽찬 포옹 속에서 영혼의 불멸을 푸뜩푸뜩 느꼈다. 영혼의 불멸, 그것은 생명의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었다.

실제는 감각으로써 인식되었다. 강석운이라는 참의 인격체를 감각으로써 인식하는데서 영림은 주체적인 진실의 종합체로서의 연애의 진리를 파악한 것 같았다.(김내성, 『실낙원의 별』, 239)29)

①은 해방이 되자 여주인공 박문경이 교편을 잡고 있던 동래여고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해방의 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하며 흥분하는 장면이다. ②는 스왈로 회담장에서 병직과 화순, 혜란의 나라 건설과 관련한 주장을 들으며 미국인 베커가 놀라는 장면들이다. 세 주인공의 대사가 많아 베커의 반응으로 대신 제시하였다. ③은 우익의 우성근 회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청년단원들이 모여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과, 심재영이 친일활동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환호하는 장면이다. 우익 정권이 출범한 후 해방에 대한 기억을 다시 편성하는 담론화 방식을 읽을 수 있다. 나머지는 이장우가 심재영과 만나다가 그의 딸 양애를 본 순간 갑자기 힘이 솟는다고 느끼는 장면이다. 비논리적이다. ④는 교수 부인 오선영이 한태석과 댄스를 추면서 순간적인 환락을 위해서라면 영원히 불행해도 좋다고 언급할 만큼 황홀경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⑤는 신분상승을 피하는 사무 여직원 노영혜가 부자 이흥태의 초대에 응해 댄스홀로 들어가면서 본 댄스홀의 풍경이다. 색채, 냄새, 현혹, 화려 등의 단어와 함께 감각적으로 그려져 있다. ⑥은 팜프파탈적인 유희주가 평소에 싫어했을

28) 백아사, 1952본.

29) 민중서관, 1959본.

뿐만 아니라 증오감까지 갖고 있던 김기철에게서 수컷의 야성을 감각하고 황홀해 하는 장면이다. 이성적 판단들이 동물적 충동에 허물어지면서도 황홀을 느끼게 되는 화주를 표현한다. ⑦은 납치 미망인인 최여사가 의사 윤만호의 피크닉 제의를 받은 후 37년간이나 살아 온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설토하는 부분이다. 과장도 이만하면 지나치다. ⑧은 초로에 접어 든 원낙영 교수가 지금은 기생이 된 옛 제자 박난심에게 사로잡혀 그간 때때로 자신을 생각했었다는 박난심의 말에 뼈에 사무치게 감격해 하는 장면이다. 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청풍장의 댄스 풍경이며, ⑩은 고영림과 강석운이 관계하게 되면서 영림이 느끼는 감정의 편린을 드러낸다. 한번의 포용으로 영혼의 불멸과 생명의 영원성을 느끼는, 감각적 인식 주체로서의 영림을 묘사하고 있다.

세 종류로 구분하여 ①/②③/④ 이후로 나눌 수 있지만, 세 종류 모두 이와 같은 장면들은 어느 곳을 펼쳐도 셀 수없이 튀어 나온다.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어 있으며, 색채, 냄새, 향취로 사유하는 ‘감각하는 인간’을 형상화 하고 있다. 황홀이란 느낌은 이들에게서 자유·민주의 주체로서 욕망하는 주체를 상징해낸다. 색채, 냄새, 접촉 등의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성도 욕망이나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매개체이다. 현실의 대상들은 때로는 시각적 색채로, 때로는 청각적 소리로, 때로는 후각적 환영으로 감각적으로 전이되어 황홀이라는 욕망의 정점을 구성해낸다.

해방 후 신문 소설들은 이처럼 ‘감각하는 인간’(Homo-Sensus)³⁰⁾을 제시하였다. 일제 시기 프로레타리아 소설이 연애의 대상도 운동의 ‘동지’로 제한하는 등 연애에서조차 이성적 잣대를 적용하였다면, 4기의 감각하는 인간은 감성의 해방을 지향하는 인간상을 창출한 것으로서 1950년대 소설에 빈번히 제시된 욕망하는 인간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성적 욕망과 관련하여 1950년대 소설은 감각하는 인간의 한 극점을 완성해낸다. 이를 가장 크게 성공시킨 작가는 정비석이며, 감각하는 인간의 전면적 대두는

30) 자세한 것은 강웅경 외, 『감각하는 인간』, 한양대 출판부, 2003, 참조.

1950년대 신문소설의 가장 큰 공적으로 판단된다. 이는 1950년대 동시대의 강신재에서도 드러나며, 1960년대 김승옥의 ‘감수성의 혁명’을 이끈 토대로 자리매김 할 수도 있다.

‘황홀’에 ‘냉전적’이라는 제한적 관형어를 붙이는 것은 냉전 체제에 내재한 제 특성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감각하는 인간의 탄생은 냉전적 억압이 만들어 낸 종합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단순히 근대 자본주의적 욕망의 산물이 아니라 냉전체제의 담론화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근대화 과정으로만 설명할 경우,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당대에 광범위하고도 폭압적으로 가해졌던 비민주적 행태들이 소거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황홀’은 냉전 미학의 대중적 기획의 일환이었다. 냉전 미학은 국가 건설·사회 질서와 관련한 광범위한 위기의식을 담보로 ‘황홀’을 조성한 후 가차 없이 이를 타매하면서 저지하였다. 신문소설이 감각하는 인간을 통해 유포한 황홀은 그 자체로 진실성을 지니지만, 선 개입된 윤리적 기준으로 비판되면서 저지되거나 처벌된다. 1950년대 신문소설의 계몽구조는 감각하는 인간의 황홀을 타매하고 처벌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2. 재미의 젠더화, 사적 영역화

대중성이란 대중에게 수용되는 미학적 장치 및 효과의 총합으로서 내적·외적 형식 및 내용에서 발생되며, 대중의 공통감각에 즉자·대자적으로, 주관·객관적으로 조향하는 여러 요소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작가의 전략에 의해 기획되기도 하고,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용자에 의해 직조되기도 한다. 소위 본격예술도 대중성이 있어야 수용된다는 점에서, 진지성/통속성, 생산/소비의 이분법을 아우른다. 통속성으로 일컬어지는 해학성, 폭력성, 관능성, 환상성, 감상성을 포함하며, 재미에 의해 구축되지만, 거칠게 말해 ‘재미’라 보아도 무방하다.³¹⁾

1기의 『1945년 8·15』으로부터 2-3기의 『효풍』 『해방』에 이르는 과정은 재미의 젠더화 과정으로, 제4기-5기의 과정은 재미의 사적 영역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945년 8·15』에서 대중 주권이 ‘실천’되는 방법은 ‘남성’이 아닌 ‘여성’(박문경)으로 하여금 ‘혈연’을 넘어 ‘정치적 여성 국민 주체’로 일어서게 하는 과정과, 불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익의 역사적 필연성을 비-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데서 생산되는 재미였다. 『효풍』의 재미는 당대의 문화풍경 묘사(정치풍경이 아니라)와 연애서사라는 장치를 통해서였다. 영어, 미국인의 사고방식 및 생활상, 댄스문화, 청년단, 골동품 가게 경요각 및 요정들, 백화점, 무역사업 및 품목 등이 자아내는 여러 풍경을 서울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다. 『해방』의 재미는 추리서사와 연애서사의 통속적 결합이 지닌 젠더화 방식에서 산출되었다.

여성 주체 형상화의 방법과 관련하여서, 『1945년 8·15』에서는 남성 지도자의 교시에 의해 움직이는 여성이 아닌, 스스로의 성찰 및 자각에 의해 정치적 여성 주체로 일어서는 여성이 형상화 되었다. 이는 남성 주체가 가부정적 면모를 지닌 것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도 특이하였다.³²⁾ 『효풍』에 이르면 정치적 여성 주체로서는 탈락되며 연애의 주체로만 남게 되다가, 『해방』에 이르면 정치적 주체도, 연애의 주체도 아닌 성적 대상화의 영역으로 밀려 나가게 된다. 이 과정은 선정성과 폭력성, 야만성이 강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효풍』에서는 성 역할 이분법에 의거하여 여성을 가정적 주체 또는 사적 영역에 위치시키려는 움직임이 드러났다. 특히 좌익 대중 주권자인 화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1) 김복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서의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제26호, 2011, 232-3쪽.

32) 혹자는 이 소설에 대해 '8·15 직후를 무문별한 흥분의 도가니로 그려냄으로써, 그러한 8·15를 부인하고 프롤레타리아적 관점에 입각한 냉정한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한 서사'라고 평가하기도 하나, 그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여성주체에 의한 국가 건설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산당도 당대를 '프롤레타리아 혁명' 단계가 아닌 '부르주아 혁명' 단계라고 언급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반공주의 가부장제’를 확인시키면서, 좌파 여성(화순)은 정치적 주체일지는 모르나 가정적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담론화 하였다. 이는 반공주의 가부장제의 시선이다.³³⁾ 여성 형상화를 통해 재미의 영역은 ‘공적’ ‘공통 감각’(대중감성)에서 ‘사적’ 영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재미의 젠더화를 유도하였다.³⁴⁾

4기-5기 소설에서의 여성 형상화는 3기까지와 달리 노골화 된다. 1954-5년 경에 이르면 소설이 재미없을 경우 신문사측이 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조치를 취하였는데,³⁵⁾ 이는 ‘재미’가 당대의 독서지형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황홀’과 관련시켜 보자면 황홀을 경험한 대개의 여성 주인공들은 결말에 가서 처벌되는, 즉 ‘황홀 후 처벌’ 구조로 재미를 유도하였다. 댄스 바람이 난 『자유부인』의 오선영은 쫓겨났다가 가까스로 귀가하고, 감히 독신주의를 내세우며 결혼불동맹이란 조직을 만들려 한 『청춘산맥』의 강미지는 외국으로 추방된다. 또 자신의 우둔함과 친구에게 남자를 빼앗길까 하는 질투심 때문에 정조를 잃은 노영혜는 혼빙간으로 소송을 내지만 결국 돈 몇 푼에 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도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단힌 결말에서 겨우 얻은 소득이다. 점잖은 교수를 유혹한 『낭만열차』의 박난심은 여성의 욕망 공간과 관련된 불치병(자궁경부암)에 걸려 소원도 한번 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또 자유롭게 연애만 할 뿐 결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권채옥은 임신이 확인되자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원동준으로부터 유산을 강요받는다. 국회의원을 통해 재산을 모으려던 김정옥은 몸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첩으로 들어간다. 회사

33) 반공주의 가부장제는 『녹색의 문』에도 제시되어 있다.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18, 2008, 참조.

34) 이상 재미의 젠더화와 관련하여서는 김복순, 『해방 후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연관』, 『여성문학연구』 제26호, 2011, 참조

35) 김말봉의 『태양의 권속』이 139회만에 중단되었으며(1952), 김팔봉의 『군웅』이 중단 조치된 것은 1955년 11월이다. 자세한 것은 이봉범, 『1950년대 신문 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 29집, 2010, 261-305쪽.

공금을 횡령하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 상사를 육체적인 매력으로 유혹한 『제2의 청춘』의 백은주는 신현우와 유지애를 동반자살로 몰아 넣는다. 『격랑』에서는 욕정에 못 이겨 남자에게 약을 타먹이고 교접하는 등의 음모를 수차례 꾸민 추련이 애인을 잃는 처벌을 당하게 되며, 애인이 있는 준식을 유혹한 금희 역시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몸을 함부로 한 『유혹의 강』의 미망인들도 소과수술이 잘못 되어 죽거나(강귀순) 첩으로 들어가거나(이경혜) 미군의 아내가 된다(장길녀). 이 소설은 미망인들에 대한 당대 사회의 공포의 정도가 얼마나 극대화되어 있었는가를 알려 주는데,³⁶⁾ 팔령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외로움을 달래고자 한 미망인들은 친구들끼리 한 남자를 두고 서로 애정갈등이나 벌이는 애욕의 덩어리로 묘사되다가 거의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 특히 납치 미망인에 대한 ‘죄인’ 취급과 ‘무주공산’ 의식은 월북자 가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인식된다. 납치 미망인이란 남편의 월북으로 미망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남편이 적성국가를 택해 ‘월북’하는 바람에 자신의 이념과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이들은 재혼도 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미망인이면서도 미망인이 아닌, 즉 남편이 없으면서도 있는, 일종의 ‘모순적’ 존재로서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 소설은 납치 미망인을 포함한 미망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거두고, 미망인들은 오로지 성적 욕망에 몸부림치는 여성들로만 그려 놓고 있다.

4-5기 소설에서 살아남는 여자들은 ‘황홀’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갈등 끝에 정조를 잃지 않았거나(『유혹의 강』의 최선애, 『제2의 청춘』의 김성희 등) 자신의 자리(모성)를 지킨 여자들(최선애), 동생을 비롯한 못 여성이 자기 애인을 탐해도 묵묵히 고통스럽게 모두 감내한 『격랑』의 한은주들 뿐이다. 남성들은 외도에, 불륜에, 온갖 감언이설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망쳐 놓았어도 거의 처벌받지 않는 대신 여성들은 소위 가부장제가 만들어 놓은 ‘여성의 본분’이라는 것에서 조금만 이탈하여도 모두 처벌받았다.

36)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와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정비석의 『유혹의 강』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집, 2010, 참조.

자유, 민주의 소비에서 소비의 주체는 남성 여성 모두를 포함하지만 차별되는 것은 주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중감성의 주체는 남성이었다. 대중감성의 주체가 남성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자유·민주의 소비가 남성성(다움)의 창출에 있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에서는 살인사건이나 이혼문제를 이슈화 하려 해도 대중들이 관심을 돌리지 않았듯이, 4기에서 자유나 민주는 주로 ‘소비’의 대상으로서 남성성의 창출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들을 ‘내부 냉전’(Kalter Bürgerkrieg)으로 창출, 확대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부 냉전이란 사회 내부에서 다른 진영의 추종자 혹은 추종자들로 간주된 자들과의 대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여성(성)은 당대 사회를 위기로 만드는, 추방되어야 할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냉전적 요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냉전체제는 사회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정성, 계급불안에 대한 비공산주의적 해결책, 계급 대신 국가(민족) 선택이라는 대 전제 하에 여성담론은 현모양처, 산업역군으로 제한하려 하였다. 『녹색의 문』에서 보듯 결혼 전의 여성, 즉 ‘소녀’에 대해서까지 현모양처에 대한 준비단계로 담론화 하였다.³⁷⁾ 이는 4·19까지의 냉전 체제에서, 여성담론은 그 일차적 목적이 여성 자체에 있다기보다 여성을 시민, 국민으로 호명하는데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여성에게 ‘황홀’은 늘 준비되어 있지만, 언제나 닫혀 있는 것이었으며, 루카치의 말대로 ‘길이 이미 주어져 있어 여행이 불필요한 형식’이었다.³⁸⁾ 이러한 담론화 과정에서 여성은 신식민적 주체의 주변부성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여성(성)에 대한 이러한 배치는 ‘냉전 자유주의’³⁹⁾의 기획 가운데 하나이다. 여성의 성적

37)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18, 2008, 참조

38) 대중소설의 이러한 내적 형식에 대해서는 김복순, 『해방 후 대중소설의 서사방식(상)』, 『인문과학연구』 19집,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9, 36-38쪽.

39) 냉전 자유주의란 냉전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틀지워진 자유주의를 말한다. 즉 자유의 개념을 ‘이념과 사상의 국가적 통일을 전제로 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에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 및 다양성이 적용될 필요

자유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적 해방으로 보지 않고 ‘육체의 과오’ ‘타락’으로 보는 것은 냉전체제가 육체의 행방을 결정짓는 한 방법이다.⁴⁰⁾

검열과 보도연맹, 전향, 빨갱이로 몰리지 않기라는 2기 이후의 담론장의 성격을 십분 고려⁴¹⁾한다 해도 신문소설은 지나치게 성 위주로 담론장을 재편하였다. 박인수 사건에서 보듯 당시의 성 풍속도가 문란해진 현실이 분명 존재하기는 해도, 신문소설은 가장 손쉬운 소재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당대의 사회 전반을 젠더화 하였다. 성 소재의 경우에서도 남성의 성보다 여성의 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적 방종을 여성의 몫으로 할당하였고, 타매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여성에게는 ‘해방의 역설’, ‘자유의 역설’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성 도덕의 변화는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파탄, 농촌의 피폐, 실업자의 급증, 월남민 여성의 문제 등 정치사회적 문제가 인과적으로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였는데 당시의 신문소설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중심의제에 제대로 접근하기보다 오히려 여성을 내부 냉전적 요소로 자리매김⁴²⁾ 하였다. 이는 당대의 단편 또는 잡지 소재 장편소설의 경우 여성의 성을 성적 해방과 연관지어 다루거나, 실존주의 등

가 없다는 논리로서, 개인의 자유를 체제경쟁을 위해 희생시키고 있다(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후마니타스, 2007, 참조).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1960년까지를 ‘전후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기카자와 마사쿠니, 김용의 외 옮김, 『일본 사상의 감성전통』, 민속원, 2012, 229-235쪽.

40) 마루카와 데쓰시, 장세진 옮김, 『냉전문화론』, 너머북스, 2010, 103-134쪽.

41) 예를 들어 해방 직후 최정희 등과 문학가동맹에 가입한 후 전향 등 어려운 절차를 술하게 치렀던 손소희가 국민방위군사건과 같은 소재를 소설화 한 『그 우기의 해와 달』을 내놓는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이다.

42) 정비석은 『자유부인』의 창작동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가장 거슬리는 풍경이 백주대로상을 종횡무진 하는 유한부인들, 돈과 권력을 가졌다는 특수 가정부인들의 댄스파티, 계 회합과 같은 탈선행위가 여성해방, 민주해방으로 간주되는 풍조에 소설로 때려 불 작정으로 『자유부인』을 창작했다.” 정비석, 『『자유부인』의 생활과 그 의견』, 『신태양』, 제6권 1호, 1957.1.99-100쪽. 이러한 정비석의 발언은 여성(성)이 내부 냉전 요소임을 밝혀주는 동시에, 동원과 감시, 억압과 폭력이라는 당시의 국가정책으로도 전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으로 형상화⁴³⁾ 한 경우와 아주 다른 방식이다. 성의 해방, 육체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냉전체제의 차이(비대칭성)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본은 타락한 여인, 육체에 이어 곧 ‘천사’를 만들어냈지만, 남한은 그러하지 못했다.⁴⁴⁾

4-5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미의 영역이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1-3기까지의 소설들에서는 공적 영역이 재미의 대상으로 아직 건재해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4기 이후에는 사회비판 내용이 담겨 있어도 그 비판이 되는 현실은 배경으로만 존재할 뿐 등장인물들의 삶과 별 연관 없이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국회의원이 가장 빈번히 ‘악’의 영역으로 배치되었으나,⁴⁵⁾ 이들의 부패와 비리가 서사와의 연관은 갖지 못하였다. 대신 사적 영역이 소설의 중심으로 들어와 소설의 주 무대가 된다.

이러한 이동은 같은 작가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염상섭의 『효풍』과 『취우』의 거리, 박계주의 『진리의 밤』과 『별아 내 가슴에』의 거리, 김광주의 『석방인』과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의 거리, 김내성의 『청춘극장』과 『애인』 『실낙원의 별』의 거리, 박화성의 『고개를 넘으면』 『사랑』과 『내일의 태양』의 거리, 정비석의 『민주어족』, 『슬픈 목가』와 『자유부인』 『낭만열차』, 『유혹의 강』의 거리는 공적(앞의 소설들)/사적 영역(뒤의 소설들)이라는 서사 지향성의 차이를 드러낸다. 전자의 경우 열망공동체의 모습이 유지되어 있다면, 후자의 경우는 사적 영역으로 후퇴하여 사회와 별 연관성이 없이 형상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진리의 밤』은 당대를 진리의 암흑기라 판단하면서 부패한

43) 『여원』 소재 여성작가 소설의 경우 여성의 성은 성적 주체, 성적 자유와 함께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고(김복순, 『낭만적 사랑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 『어문연구』 151호, 2011), 한말숙의 『별빛 속의 계절』은 실존주의적 해석을 보여준다(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라그머티즘』,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61-104쪽).

44) 마루카와 데쓰시, 장세진 옮김, 『냉전문화론』, 너머북스, 2010, 128쪽.

45) 특히 정비석의 소설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다.

현실 타파 및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열정을 설파한다. 조각가 지 운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채무자”라면서, 싸움 없는 균등천국을 건설하려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⁴⁶⁾을 토대로, 학병 경험에, 해방 후에도 중도 성향의 잡지 『민성』의 주간과 일간지 『한성일보』의 취재 및 편집고문 역을 지낸 바 있는 박계주답게 공동체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균등천국’으로 창기 갱생의 집인 ‘마리아의 집’을 운영하기로 한다. 지 운은 기독교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예수처럼 실천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 부패현상을 민족 독선주의, 특권 계급의 문제라고 보는 이 소설은 공적 영역에 대해 일종의 개선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소설은 종교공동체를 통해 ‘시민’ 범주를 획득하는 ‘시민 이야기’를 만들어⁴⁷⁾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별아 내 가슴에』에 이르면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혈혈단신 월남한 여대생 이미혜가 아버지의 제자인 현암 선생과 지내면서 싹튼 사랑과 은혜의 문제, 또 현 암에 대한 애욕으로 몸부림치는 여성들, 하룻밤 관계로 생긴 아들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등의 모습이 형상화 되어 있을 뿐이다. 비록 결말에서, 죽음에 이른 현암이 아들에게 고아원 자선사업을 부탁하고 떠나지만 그것은 사회문제와 별 연관없이 아들과 헤어져 산 아버지의 회한이 이끌어낸, 사적 관계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것일 뿐이다.

정비석의 경우에도 『민주어족』과 『슬픈 목가』는 『자유부인』, 『낭만열차』, 『청춘산맥』, 『유혹의 강』 계열과 서사지향성이 다르다. 『민주어족』은 민주적인 노동현장을, 『슬픈 목가』는 새로운 농촌 공동체의 건설을 그리고 있다. 정비석의 소설은 월남인의 남한 정착 문제와 연관되는데, 특

46)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개량을 꾀하는 이념으로서, 유물사관 계급투쟁 폭력 혁명 따위를 부정하고 초대 교회가 실천한 사랑과 형제애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가난한 계층을 돕고 서로 협조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이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와는 다른 이념이나, 후에 해방신학 등으로 이론적 발전이 피하여져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광의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47) 1950년대의 기독교 소설들은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히 이 두 소설은 월남인의 도시 및 농촌 정착의 문제를 제시해 보여 준다. 앞 장에서 다룬 황홀도 약화되어 있고 재미도 떨어지지만, 공적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건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⁴⁸⁾

『민주어족』은 ‘민생 알미늄 제작소’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박재하 사장이 노동현장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과학구국을 실천해 내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 당시 퍼져있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사장님 대신 사장으로 부르게 한다던가, 모든 회사 규칙을 민주 사상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바로 사회의 주인공이며, 민주정신에 입각하여 ‘일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민주 구국, 과학 구국의 사상이 깔려 있다. 『슬픈 목가』는 더 나아가 쓰리꾼과 월남 빈민, 즉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농촌 공동체를 건설하여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 당대의 사회 현실을 ‘황무지’라 보면서 농촌 개척, 임야 건설을 통해 새 나라 건설에 다가서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낸다. 개척민 13명 중 대다수가 월남민이라는 점에서, 또 그들 중 일부가 전라, 충청민으로 혼성 개척단이라는 점에서 ‘남북통일을 제일 먼저 완수했다’는 자평도 이루어낸다. 농촌개량사업을 통한 농촌부흥론이 1950년대 말기의 정비석의 ‘방법’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⁴⁹⁾

긴 절필기간을 끝내고 다시 복귀한 박화성도 『고개를 넘으면』에서는 6명의 남녀대학(원)생들을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설계도를 피력한다. 과학구국 근대주의를 설파하면서 근대를 태동시킨 과학정신, 물질문명의 방법을 배워 이를 한국의 국가, 사회 건설의 방법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48) 이 계열의 소설은 정비석 연구에서 거의 소외되어 있는데, 이는 정비석에 대한 연구자들의 편견 또는 정치성을 드러낸다고 본다. 『자유부인』 계열이 ‘정비석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도 편견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49) 『슬픈 목가』는 3기 이전과 4-5기의 차이를 드러낸다고보다 5기의 특징을 더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1957-8년경부터 일어난 부패척결에 대한 방법론 모색, 모종의 사회비판정신 등이 담겨 있다.

다. 물질문명을 이룩한 서구 근대를 배우고 합리주의 정신을 수용하여 “피폐하고 병든” 조국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내일의 태양』에 이르면 한번 결혼했던 ‘현 여자’인 남희라와 양반집 총각인 윤희진과의 결혼 장애 이야기로 전면 후퇴한다. 재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다기보다 오로지 현 여자의 재혼하기 어려움의 문제로 귀착된다.

공적 영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윤리적, 성찰적, 실천적 인물들이 형상화 되었으나, 사적 영역화 한 이후에는 대부분 이러한 인물들의 부재로 나타난다. 윤리적 인물의 부재란 비판적 성찰의 부재, 반성적 주체의 소거와 동궐에 해당한다. 이는 도덕성을 무화하는 자본의 방식과 상동성을 띠는 점에서 냉전 미학의 한 특징이라 판단할 수 있다. 공적 영역으로 부터 사적 영역으로의 이동에서 드러나는 세태소설 방식은, 비판하고자 하는 현실세계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배경으로만 언급한다는 점에서 ‘현실 은폐’에 가깝다. 이러한 기법은 냉전 미학의 중요한 기획 중 하나이다.

2.3. 무논리성·즉자성의 원리 : 반공주의, 미국주의

이 시기 신문소설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중 또 하나는 반공주의와 미국주의이다. 그런데 이들 이데올로기들이 반영되는 방식은 이론적 비교논쟁 등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 ‘따라야 할 것’으로 묘사된다. 2기까지는 비교논쟁이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지나 3기부터는 즉자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거나 선망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효풍』에서는 좌파, 우파, 미국인까지 가세하여 이념 논쟁을 벌이지만, 『해방』에서 하윤철이 인민당(공산당의 외곽단체)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이는 친구가 있어서’였으며, 『애정무한』에서는 무조건 공산주의자를 비난한다. 민족간 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를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인류의 적이라 언급한다. “공산 세상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좌익 사람들은 부모도 동생도 모른다” 라고 말한다. 『민주어족』에서는 여순공대 출신의 1급 기사인 박재하가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자

공산당은 무조건 반동분자로 몰아 투옥시켰다고 한다. 또 부당하게 박재하를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하는 장면에서는 반공주의의 폭력성도 보인다. 『낭만열차』에서는 옷 입새가 허름한 사람을 보고 바로 공산당이 아닌가의 의심(52-3)하는 장면이 나오고, 『슬픈 목가』에서는 북한에서 살다가 월급쟁이로서 희망이 없어 월남했다고 하자 대뜸 이북에서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201)고 질문하다. 또 쓰리꾼 대장 한도숙은 월남한 이유에 대해 공산주의자가 ‘그저 싫어져서’라고 말한다. 『진리의 밤』에서는 공산당의 정치란 기만의 천재라며,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329)하는 한편, 소련처럼 사고·행동의 통일을 요구하는 집단은 개성을 말살하고 개인 없는 집단이 될 뿐이라 언급한다.

공산당은 인류의 적, 부모도 가족도 모르는 인간들이라 함으로써 패륜의 대명사로 낙인 찍혀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언급을 통해서는 언제라도 사람을 죽이는데 인색하지 않은 흡혈귀로 묘사되며,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공산주의는 파괴, 낙오, 기만, 죽음, 강탈, 살인, 비인간 등의 원초적(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언사를 통해 ‘절대악’의 세계로 형상화 된다. 싫은 것, 나쁜 것에서 더 나아가 절대로 상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왜 나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무조건 나쁜’ 것이어서⁵⁰⁾ 비논리성 및 즉자성으로 형상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¹⁾ 대신 반공주의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신문소설의 이러한 형상화 방식은 1960년대 이후 반공주의 정서의 원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50) 반공/공산 구도 및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은 일제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해방 후 김일성도 이러한 편견 때문에 북한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학준, 『북한 50년간: 우리가 떠안아야 할 반쪽의 우리 역사』, 동아출판사, 1995, 100쪽.

51) 조희연의 ‘무내용성’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무내용성이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주장 외에는 고정된 내용을 갖지 않고, 다른 다양한 형태의 이념들과 ‘접합’하며 존재하는 담론체라는 것이다.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 읽는 책, 2003, 123-4쪽.

공산주의에 대한 이러한 반응에는 작가들의 출신과 연관된 사회상황도 적지 않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빅3에 해당 하는 작가 중 정비석과 김내성은 북한 출신이며, 박계주는 만주 출신이다. 1949년 11월말까지 전향한 문화인의 규모는 200여명 되었는데, 박계주와 정비석은 전향성명서를 발표하여야 했다. 또 정비석은 한국전쟁 시 종군작가로도 참여한다. 즉 북한 출신들은 남한 내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적극적 부정’의 형태를 취해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월남인의 생존방식은 그들의 소설을 더욱 반공주의로 몰고 갔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과거로부터의 자신을 분리시키고 타자화 해야 했다. 이런 과정이 월남 작가들의 소설에서 공산주의 더욱 ‘절대악’으로 형상화 하는데 일조하였다⁵²⁾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균열을 드러내는 부분도 적지 않다. 『청춘산맥』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를 박탈하는 공산당의 무지의 힘만이 무자비하게 세상을 휩쓸 것이라 말하지만 투옥된 경관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키는 것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공산당이였다. 또 『민주어족』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멸정책이 공산당보다도 더 무섭다(92)고 말함으로써 당대의 정책을 공산당보다 더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슬픈 목가』에서도 공산도배의 오열보다 근로정신의 결핍이 더 무섭다(103)고 언급하여 공산도배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들은 앞의 소설들보다 덜 읽혀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균열이 대중적 호소력을 지녔던 것 같지는 않다.

미국주의는 미국을 마치 ‘근대성의 세트’(modernity set)인 것처럼 담론화 하는 것으로서, 1950년대에는 거의 내면화 되어 있었다. 미국에 대한 전망은 1기부터 나타나지만, 『효풍』의 ‘스왈로 회담’ 장에서 보듯 2기까지는 국가 건설 이념으로서 비교냉전의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3기의 『해방』에서는 미국 선택이, 미국주의가 지니고 있는 이념적

52) 심지어 선우 휘는 소설 『노다지』에서 서북청년단을 옹호를 넘어 예찬하기까지 하면서 폭력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소임까지 수행해낸다.

우위성보다 단지 소련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387-391). 즉 미국주의는 부정의 반정립 형식에 의해, 대타적으로 선택된 것일 뿐 확고한 논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4기 이후에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미국문화로 넘실대는 장 그 자체였다.

..그야말로 고급 자동차들의 전시회 같은 느낌을 주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애용하게 되었는지, 실로 놀라울 지경이었다. (『자유부인』상21)

파리양행은 그다지 큰 가게는 아니었다. 그러나 진열된 상품은 모두가 외래품들이었다. 돈을 모르기 위한 장사라기보다 일종의 도락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자유부인』상81)

댄스홀, 자동차, 사진기, 과감한 의상, 키스, 화장술 등 4기 소설의 무대는 미국문명관이나 다름이 없었다.⁵³⁾ 미국은 ‘해방군’, ‘은인의 나라’라는 의미화에 이어, 강하고 훌륭한 미국의 문화는 무조건적으로 무논리적으로 즉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로 내면화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무논리성, 즉자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생리’이다. 생리적으로 싫다, 좋다, 생리적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생리’라는 단어가 가장 빈번히 쓰인 작품은 김내성의 『애인』이다. ‘젊은 생리’, ‘학생들의 생리’, ‘생리적으로 구역질이 났다’, ‘단념이 수월한 생리적 조식을 가졌다’, ‘여성이란 애정의 발견에 있어서도 생리적으로 수동적 태세를 취한다’, ‘전체 한국인의 생리’ 등 편의적으로 생리란 단어를 거듭 반복 사용하고 있다. 생리란 말은 논리의 영역을 벗어난 감성의 영역이다.⁵⁴⁾ 비이성적으

53)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미국주의에 대해서는 상허학회의 2006년 11월 『1950년대 미디어와 미국표상』(18호) 특집 참조

54) 선우 휘도 『노다지』, 『테러리스트』, 『깃발 없는 기수』 등에서 공산주의가 ‘생리적으로 싫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로 세계를 사유하는 방식이다.

미국주의, 미제는 선망의 대상으로 내면화 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양가적인 것이었는데, 신문소설들은 이러한 양가성에 착목하기보다, 소비의 미국화가 거의 불가능한 최빈국의 시기(1950년대)에 허영·사치=미국주의로 등식화 하면서도 선망의 시선을 내면화 하고 있었다. 앞서 정비석의 말처럼 전후의 사치풍조를 조장하고 앞장 선 사람들은 상류층이었고⁵⁵⁾, 신문소설이 내면화 한 미국주의는 당시 남한의 절대 빈곤이라는 상황에서 볼 때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었다.⁵⁶⁾

2.4. 이분법의 극단화, 비(무)갈등론의 패퇴

해방 후 신문소설은 2기를 벗어나면서부터 선/악 이분법을 즐겨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3기 이후에는 이분법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흑백논리화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기법을 가장 완벽하게 구사한 작가는 정비석이었으며, 다른 작가들도 거의 대동소이 하였다. 선/악, 반공/공산, 남/녀, 자유/방종, 민주/비민주 등이 이분법화 되어 있으며, 친일/반일, 친미/반미의 대립구도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분법적 개념 군들은 그 자체가 이분법적 세계관인 동시에 현실을 이데올로기화 한다. 그럼으로써 올바른 현실인식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분법적 세계관을 더욱 창조하고 확대한다. 이러한 이분법은 역사에 대한 피상적 관찰과 담론이 만들어낸 대결적 언사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신문소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한 방법은 앞서 검토한 바, ‘성별 이분법’이었다. 성별 이분법은 당대의 위기관리를 위해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된 이분법이었다. 혼란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가부장제의 재정립을 위해서도 요청되었던 사안이었다.

55) 이러한 사실은 댄스 파티가 가장 빈번히 묘사된(5회 이상) 김광주의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에서도 ‘정치병환자 흥’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56) 김덕호·원용진 엮음, 『아케리카나이제이션』, 푸른역사, 2008, 130-131쪽.

이러한 요청을 가장 잘 수행한 것이 신문소설이었다. 정비석은 선/악을 분리하여 선인은 흔들려도 선의 세계로 되돌아가게 한 반면, 악인은 끝까지 악인으로서 극단적 지점까지 전개하였다. 선/악 이분법의 흑백논리화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증폭되었으나, 극단적인 이분법의 망팔리 때는 역으로 박화성처럼 오히려 이를 거부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하였다. 당대의 작가 중 이분법을 거부한 작가는 박화성이 유일해 보인다. 『고개를 넘으면』의 후기에서 박화성은

작자가 의도하고 고집한 것은 악인은 한 명도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추악한 장면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소설이나 영화에서 선악 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작자들이야 물론 사회의 모든 추악상을 악인을 통하여 폭로시켜 그것을 인과관계에서 시정하여 써 하나의 교훈을 독자와 관중에게 주고자 함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층의 독자들은...(중략)... 그 정(正)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악을 먼저 감수하게 되어...(중략)...저지른 과오들이 많고 많은 것은...(중략)...이런 까닭에 작자는 이 작품에서 추의 장면과 악의 인물들을 피하여...(중략)...건실한 이상으로 나가는 건전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다.(556)

‘의도하고 고집하여’ 선/악 이분법을 거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선과 악이란 주지하다시피 ‘가치’의 범주를 그 토대로 하고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어떤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문제이며, 또 그것은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사안에 선/악의 가치를 배분, 설정하면서 사회를 일정하게 담론화, 이데올로기화하기도 한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가치 나눔에 의한 ‘갈등’이야말로 소설 장르를 지탱케 하는 기본 요소이다. 근대 서사중 하나인 소설 장르는 가치배분을

통한 갈등의 세계를 그리는 장르이다. 박화성은 선/악 이분법 등을 거부함으로써 근대 서사의 대원칙을 거부한다. 물론 소설 장르는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을 지니고 있다. 형식의 측면에서는 서술자의 존재 여부 및 방법이 소설 장르의 핵심 부분이다. 하지만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박화성의 1950년대 소설들은 ‘가치배분을 통한 갈등의 세계’를 분명 거부하고 있다.

가치의 문제는 자유주의-사회주의-마르크시즘을 관통하는 핵심 범주 중 하나이다. 근대의 자본 문제, 계급 문제, 유토피아 지향성 등은 가치 범주와 연관되어 있다. 즉 선/악 이분법의 거부는 가치 범주를 새롭게 구상하고자 하는 탈근대적 지향의 소산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악인 형상화에 대한 거부, 선/악 이분법의 거부는 비(무)갈등이론과 연결된다. 가치범주가 새롭게 재편된 사회에서는 갈등이 없다는 ‘무갈등이론’은 사회주의 문학창작론, 혁명적 낙관주의 일반이 갖는 과제였다.⁵⁷⁾ 해방직후 이기영의 소설(예: 땅)을 비롯한 사회주의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배적 특성 가운데 하나였다. 박화성의 이러한 창작방법은 무갈등이론 또는 비갈등 이론과 유사하다.⁵⁸⁾

서사에서 갈등은 인물들 상호관계의 대립과 충돌, 투쟁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지만, 극단적인 이분법은 인물들 간의 상호관계가 적대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4기 이후의 신문소설은 대 사회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그리는 대신 사적 영역에서의 인물들의 극한적 대립과 충돌 속에서 갈등을 표출하도록 기획하였다. 그리고 그 갈등이란 계급적 갈등이라기보다 애정갈등이었고, 신분 갈등이나 권력 갈등이 있을 경우에도 애정 갈등 중

57) 김윤식, 『토지개혁과 개벽사상』, 『한국현대현실주의소설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228-230쪽. 무갈등이론은 사회주의 사회가 모순과 갈등이 사라진 이상적 사회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는 것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1950년대 소비에트 사회에서는 무갈등이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생활의 진실로부터 유리되고, 세부묘사도 진실성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무갈등이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풍자문학의 부활이 제창되었다. 김규진 편, 『러시아문학 입문』, 월인, 2003, 212-213쪽 참조.

58) 이상 박화성의 ‘이분법 거부’에 대해서는 김복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서의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26, 2011, 참조.

십이었지 사회적 모순이나 제도적 모순과의 연관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 사회적 갈등을 형상화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서사적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동 공동체, 농촌 공동체 구상을 지향하는 『민주여족』과 『슬픈 목가』 『진리의 밤』에서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 망팔리떼가 극단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것은 애정갈등 중심서사가 아니라 공동체 지향의 서사였기 때문이다.

신문소설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방식은 긍정인물의 긍정적 요소에 의해 부정인물과의 갈등이 해소된다기보다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부에 관계없이 여성 인물을 타매·비판하고 차별함으로써 해소되는 갈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선/악, 반공주의/공산주의, 미국주의(근대성)/비근대성, 성실/태만, 자유/방종, 민주/비민주, 남성성/여성성, 새 것/낡은 것, 진보/보수 등을 극단화 하지만, 가장 우선적 기준이 되는 것은 여성성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주의도 남성성과 결합하면 좋은 것으로 형상화되지만, 여성성과 결합하면(댄스-여성 등) 부정적인 것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냉전미학은 이분법적 망팔리떼의 형성 요인으로 ‘여성성’을 배치하였으며, 해소방식은 부정적인 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해방 후 신문소설이 개진하는 국가(사회) 건설의 합법칙적 과정은 이처럼 부정적인 여성성을 소거하고 건강한 남성성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3. 맺는말

욕하면서도 보게 된다는 소위 ‘막장 드라마’는 한국적 특수성에 해당할까, 아니면 전 지구적 보편성 해당할까. 해방 후-1950년대의 신문소설은 그 부분적인 답을 제공해 준다. 감각화, 사적 영역화, 젠더화, 무논리성·즉자성, 극단적 이분법의 특징들은 해방 후-1950년대 소설을 구조화 하는 원리로서 내적 형식이었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이러한 특징들은 대중성의 한국적 특수성의 ‘기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시기의 신문소설을 일반화 하거나 획일화 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내적 형식 및 특징들을 추출함으로써 당대 신문소설의 제 특징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 냉전의 대립구도를 지속하는데 일조하기보다 냉전은 무엇이었고, 미학적으로 어떻게 스며들어 있으며, 구체적인 전개양상은 어떠하였는지를 밝혀 전형적인 냉전논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역설적이게도 냉전과 같이 이데올로기가 주 원인이 된 대립에 대한 설명은 이데올로기를 떠난 관점으로 접근할 때 가능해진다. 냉전이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대립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냉전 미학 또한 대립구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일 수 있다.

서사장르란 주지하다시피 문제를 ‘해결’ 해주기보다 ‘제시’해 주는 영역이다. 따라서 두 개의 대립을 문제시 하는 서사내용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해방 후-1950년대까지의 신문소설은 이와 같은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당시 신문소설의 감각화, 사적 영역화, 젠더화, 무논리성·즉자성, 극단적 이분법이라는 내적 형식들은 냉전의 문제를 ‘제시’해 주기보다 ‘은폐’하였고, 신식민적 타자들을 양산하는데 더 기여하였다. 여성의 자유 등을 포함하여 여성주체의 형상화를 꾀하는 듯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성)은 더욱 뚜렷하게 ‘내부 냉전’ 요소로 확대·배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냉전-분단이 남성의 노이로제였음도 확인시켜 주었다.

당시의 신문소설은 냉전의 다양한 국면을 반영하면서 냉전 미학을 창출해 보여 주었다. 체제경쟁, 이념경쟁, 이분법적 대립, 내부 냉전 요소 만들기, 특정 주제 다루지 않기, 특정 주제 극대화 하기, 냉전에 대한 풍자 결어 등 당시의 신문소설은 비정치적 형태의 위장된 냉전 무기였다. 당시 신문소설의 계몽구조는 신식민적 타자의 생산을 통한 계몽구조였다. 이는 잡지 소재의 단편이나 장편, 전작 장편의 서사전략과 다른 것이었다. 냉전 미학은 감각화, 사적 영역화, 젠더화, 무논리성·즉자성, 극단적 이분법이라는 내적 형식을 통해 ‘여성성’을 가장 근본적인 냉전 요소로 배치하였다. 즉 냉전 미학에서 ‘젠더’는 기본모순의 핵심이었다.

냉전 시기 전체를 구체적으로 조망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비교 분석하

는 일은 안타깝게도 차후로 미룬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남천, 『1945년 8·15』(『자유신문』 1945.10.15-1946.6.28), 염상섭의 『효풍』(『자유신문』 1948.1.1-11.3), 『취우』(『조선일보』 1952.8.1-1953.2.10, 을유문화사, 1954), 김동리의 『해방』(『동아일보』 1949.9.1-1950.2.16), 김광주의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경향신문』 1951.12.1-1952.4.1, 백아사, 1952), 『석방인』(『경향신문』 1953.7.10-12.30, 대영당, 1954), 최정희의 『녹색의 문』(『서울신문』 1953.2.25-7.8, 정음사, 1954), 정비석의 『청춘산맥』(『경향신문』 1950.1.1-6.25, 문성당, 1952) 『자유부인』(『서울신문』 1954.1.1-8.6, 정음사, 1954, 영화화) 『민주어족』(『한국일보』 1954.12.10-1955.8.8, 정음사, 1955) 『낭만열차』(『한국일보』 1956.4.25-11.24, 동진문화사, 1958, 영화화) 『슬픈 목가』(『동아일보』 1957.3.1-7.27, 춘조사, 1957) 『유혹의 강』(『서울신문』 1958.2.1-10.29, 신흥출판사, 1958), 박계주의 『진리의 밤』(『경향신문』 1948.10.1-1949.4.23, 평범사, 1952), 『별아 내 가슴에』(『서울신문』 1954.11.2-1955.5.2, 영화화), 김말봉의 『생명』(『조선일보』 1956.11.28-1957.9.16, 동인문화사, 1957) 『푸른 날개』(『조선일보』 1954.3.26-9.13, 형설문화사, 1954), 김내성의 『애인』(『경향신문』 1954.10.1-1955.6.30, 육영사, 1955.) 『실낙원의 별』(『경향신문』 1956.6.1-1957.7.25, 정음사, 1957), 박화성 『고개를 넘으면』(『한국일보』 1955.8.9-1956.4.23, 동인문화사, 1956, 영화화) 『사랑』(『한국일보』 1956.11.25-1957.9.15, 동인문화사, 1957) 『내일의 태양』(『경향신문』 1958.6.1-12.14, 영화화), 안수길의 『제2의 청춘』(『조선일보』 1957.9.17-1958.6.14, 일조각, 1958), 박영준의 『태풍지대』(『서울신

문』 1957.7.15-1958.1.31, 민중서관, 1958), 장덕조의 『격랑』(『경향신문』 1957.12.1-1958.5.31, 신태양사, 1959). 한무숙의 『빛의 계단』(『한국일보』 1959.9.6-1960.2.6, 현대문학사, 1960), 안수길의 『부교』(『동아일보』 1959.7.21-1960.4.1, 한국영배주식회사, 1960)

2. 단행본

강웅경 외, 『감각하는 인간』, 한양대 출판부, 2003.

구모룡 외, 『파시즘 미학의 본질』, 예옥, 2009.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김광열 외,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2006.

김덕호 · 원용진 엮음, 『아케리카나이제이션』, 푸른역사, 2008.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후마니타스, 2007.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08.

이영미 외, 『김내성연구』, 소명출판, 2011.

정근식 편,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주의』, 선인, 2011.

조정민, 『만들어진 점령서사』, 산지니, 2009.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 읽는 책, 2003.

마루카와 데쓰시, 장세진 옮김, 『냉전문화론』, 너머북스, 2010.

베르트 슈퇴버, 최승완 옮김, 『냉전이란 무엇인가-극단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8.

팀 에텐서, 박성일 옮김,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정체성』, 이후, 2002.

3. 논문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연구」, 제주대 박사논문, 1999, 1-234쪽.

김복순, 「해방 후 대중소설의 서사방식(상)」, 『인문과학연구』 19집,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1999, 33-60쪽.

- 김복순, 「낭만적 사랑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 『어문연구』 151호, 2011, 285-317쪽
- 김복순, 「해방 후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연관」, 『여성문학연구』 제26호, 2011, 225-271쪽.
- 김복순, 「1950년대 박화성 소설에서의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제26호, 2011, 229-260쪽.
- 김성수, 「박계주의 『대지의 성과』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9, 2006, 287-320쪽.
-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과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정비석의 『우혹의 강』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집, 2010, 211-229쪽.
- 안미영, 「김말봉의 전후 소설에서 선·악의 구현양상과 구원 모티프」, 『현대소설연구』 23, 317-340쪽.
- 이봉범,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중문화연구』 64집, 2008, 215-254쪽.
- 이선미, 「공론장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대중서사연구』 26, 2011, 111-150쪽.
- 이순진, 「한국전쟁 후 냉전의 논리와 식민지 기억의 재구성」, 『기억과 전망』 23호, 2010, 70-105쪽.
- 이영미, 「정비석 장편연애·세태소설의 세계인식과 그 시대적 의미」, 『대중서사연구』 26, 2011, 7-44쪽.
- 테어도르 휴즈, 「냉전세계질서 속에서의 해방공간」, 『한국문학연구』, 28집, 2005, 『한국문학연구』 28집, 2005, 3-29쪽.
- 홍석률, 「분단의 매듭풀기」,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012.
- 황동하,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소련인식」, 『아시아문학연구』 19집, 2011, 272-302쪽.

Abstract

Form and Gender of Cold War-Aesthetics

- On Focusing the News Papers Novels from Liberation to 1950' -

Kim, Bok-soon

When cold war period is regarded as modern era, the characteristics of new colony is concealed. Cold war-aesthetics is ideas that cold war system discoursed to artistic goals and narratives.

The inner forms that interpreted Homo-sensus, interest for private-categorized, genderedness, unlogicalness, binary opposition covered up the problems of cold war system, and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In that method woman was elements of 'inner cold war', and gender was the core element of basic contradiction of cold war aesthetics.

Key words : cold war-aesthetics, popular sensitivity, community bound together by intense aspiration, cold war-rapture, Homo-Sensus, gendered interest, anti communism, Americanism, theory of un(anti)-conflict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